행복청, 세종 개신교계 억지주장 반박

"면적 확대는 조계종 공급 이전… 특혜 없다"

세종시 종교용지에 들어설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 일부 개신교 단체들의 억지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전면 반박에 나섰다.

행복청은 12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용지 허가 과정서 조계종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세종 개신교 단체 연대인 '행정수도 바로세우기 시민연합' 주장을 반박했다.

행복청은 "새로운 국가 행정중심도시로서 전국적 규모의 종교단체들로부터 대형종교용지에 대한 요구가 있어 대형종교용지를 5개소 확보했고, 이 중 개신교, 천주교, 불교 조계종, 불교 천태종 총 4개소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1만6000㎡ 이상의 대형종교용지는 특정 종교만의 공간이 아닌 일반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했다"면서 "특화종교시설로 지정해 도시특화전문위원을 두고,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 자문을 거쳐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로 건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종교용지를 조계종이

불교 · 천주교 · 개신교에 공급
시민 · 관광객 위한 열린 공간
자문 거쳐 대표 건축물 계획
"타 대형종교용지 반영도 유사"

매입하는 과정에 특혜는 없었음을 강조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S-1생활권의 조계종 용지는 2013년 4월, 3-3생활권과 5-1생활권 1만㎡ 대형종교용지 2곳과 함께 대형종교용지로 계획됐다. 이후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이전에 종교용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소유용지를 LH에 양도한 22개 용지 소유자(종교용지 협의양도인)에 대해 종교용지를 우선 공급하고자 검토했다. 이에 S-1생활권에 위치한 해당 종교용지는 기존 석불사 종교용지를 협의 양도한 조계종에서만 매입 신청했고, 2015년 10월 1만6000㎡ 규모의 대형종교용지 3곳을 도시의 특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특화종교용지로 결정하면서 4-1생활권, 6-4생활권의 대형종교용지와 함께 S-1생활권 해당 용지 규모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복청은 "주변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등을 함께 계획한 것은 대형종교용지 주변 방문수요 등에 맞게 바로 인접한 지역에 관련 시설들을 계획한 것으로 해당 용지만의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행복청은 또한 세종 개신교계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밝혔다. 먼저 최초 280평을 1만8000평으로 64배 확대, 특정종교에 편법으로 공급했다는 개신교계 주장에 "1만㎡로 면적 확대는 조계종에 공급 이전이며, 이후 특화종교용지로 지정돼 1만6,000㎡로 면적이 증가하면서 2016년 6월 변경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화종교용지를 부당하게 적용해 28m 불상 등 각종 조형물 설치가 가능한 건축 기반 마련 특혜 주장에는 "경관적인 측면과 공공성이 가미된 시설 도입을 위해 오히려 규제가 추가되며, 행복도시 총괄기획가와 자문단 자문과정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대형 상징물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차장 · 근린시설 등 8000평을 지원하고, 세종시가 시설물 관리 및 운영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 등은 타 대형종교용지 인근에도 유사하게 반영됐고, 민간에 매각 예정부지로 세종시 관리 및 운영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점에 대해 "주변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나, 해당용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경우 과도한 용적률(200% 이하)로 개발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이준원 금강대 총장 돌연 사직서 제출

취임 20일 만에… 건강문제로



지난달 취임한 이준원 금강대 총장〈사진〉이 12월 6일 취임 20여 일 만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해 관심이 쏠린다. 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총장은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총장직 수행에 어려움을 표했다.

금강대 모 교수는 "최근 총장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학교운영에 대한 중압감을 상당히 느꼈다. 특히 과거 심장 수술을 한 병력이 있고, 최근 당 ·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들었다"면서 "고등학교장과 다른 대학총장의 무게에 따른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준원 총장은 본지 전화통화에서 "현재 병원 입원 중이다. 통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금강대 법인사무처장 월장 스님은 "최근 이 총장님 건강히 급격히 나빠졌다. 아직 사표 수리가 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다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건강문제로 이 총장이 학교를 그만두면서 최근 위기 극복을 다짐한 금강대가 다시 난관에 부딪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윤호섭 기자**

국토부, 논란의 도로표지판 개선키로

'도로표지 개선방안 연구' 추진… 선진국 사례 참조 계획

사찰과 문화재를 비롯해 세계문화유산 등 전통문화 표기를 고속도로표지판서 삭제키로 해 논란을 빚었던 국토부가 12월 8일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밝혔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문화재, 세계문화유산 등 고속도로표지판 표기 확대, 일부 크기가 작은 글자 판독성 강화, 영문 표기 통일 등 지속적인 개선사항을 받아들여 이용자 중심으로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적용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도로표지 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며 관광지 현황 조사 분석 및 선진국 사례 참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민원을 이유로 고속도로표지판 내 전통사찰 안내를 삭제 추진해 불교계와 시민사회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는 당시 예규의 관리지침에 지역명소나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을 안내하는 표지는 허용치 않음을 들어 표지판 철거에 나섰다.

불교계는 이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유 사찰과 세계유산 등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전통문화를 계승 · 발전시키는 국가책무에도 맞지 않으며, 안내를 적극 권장하는 해외 등의 사례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종차별금지, 이주민정책 핵심"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12월 12일 주장

불교 · 개신교 · 천주교 · 원불교가 차별 없는 세상, 이주민의 인권이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이주민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4대 종단 이주 · 인권협의회가 '세계이주민의 날'(12월 18일)을 앞두고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성명을 내고 "이주민에 대한 비하, 멸시, 차별이 일상생활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제재는커녕 차별 예방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처벌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국내 이주민 정책에 대한 UN의 권고가 정부 당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주민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권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단별 입장발표와 성명 발표가 끝난 뒤 협의회는 인권위원회를 찾아 조영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주여성이나 아동문제는 복합적인 문제일 것이다. 특히 귀화할 때 3000만원이 든다는 점은 놀랍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한국사회는 난민에게 좁은 문을 제공하고 있다. 그 내면에는 민족 · 혈통 중심의 폐쇄적이고 이중적인 자세도 있을 것이다. 4대 종단이 나서 얘기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4대종단 관계자들이 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주민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박진형 기자 realjeanp@hyunbul.com



정찬주 작가의
법정 스님이야기
㉑ 사진 한 장

추억 상기 시켜준 사진 선물

지난 연휴 기간에 부산에서 두 손님이 내 산방을 다녀갔다. 두 손님은 어머니와 딸이었다. 7년 전 불일암에서 함께 찍었다는 사진을 가져왔다. 빈손으로 왔다며 미안해했지만 나는 사진 한 장이 큰 선물이라며 소중하게 받았다. 사진을 보니 그날이 생각났다. 송광사 다비장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시는 법정 스님의 천화(遷化)를 보고 허전하여 불일암으로 올라가 있을 때였다. 두 모녀가 나를 보고 독자라며 찾아왔던 것이다.

나는 외출에서 돌아와 휴식을 좀 취하려고 하던 참이었다. 산방 앞에서 두 손님을 마주친 나는 외면할까 하다가 돌아서 물었다. 부산에서 왔는데 내 책을 좋아하는 독자라고 하니 잠시 반가움이 일었다. 부산이라면 전라도 화순 쪽에서 볼 때 동쪽 끝의 먼 곳이었다. 나는 차를 한 잔 대접하려고 차방으로 불러들였다.

차를 마시는 동안 나는 손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손님은 법정 스님의 평범한 독자가 아니었다. 법정 스님께서 쓰신 〈무소유〉부터 모든 책을 거의 다 애독하고 소장하고 있는 분이었다. 거기다가 나의 책까지 좋아하는 분이었다. 손님의 방 책꽂이에는 법정 스님과 나의 책만 있다고 말했다. 다른 저자의 책들은 다 치워버렸다는데 내가 법정 스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 책이 그런 대접을 받았는지도 몰랐다.


일러스트 · 정윤경

나 역시 스님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겠지만 스님은 출가 수행자이시고 나는 재가자 소설가이기 때문에 글의 뿌리나 색깔은 다르지 않을까도 싶다. 스님의 책을 애독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았다.

"스님 책이 왜 좋습니까?"

"스님께서 경험한 얘기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살아있는 얘기 속에는 지혜가 있거든요. 그 지혜를 만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제야 나는 이 분이 정말로 책을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실감을 했다. 그래서 내 책 중에서는 근간인 〈길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산문집을 선물하고 싶어 이름을 물었다. 그러자 이름에 얽힌 사연을 말했다. 증조할아버지는 칠곡에서 태어난 이승연(李昇淵) 독립운동가였다. 남만주의 신흥강습소(신흥무관학교 전신) 운영비 조달 등을 위해 국내에서 비밀리에 두 차례나 모금활동을 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분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아버지 꿈속에 나타나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는 이설안(李雪雁)이라는 이름을 점지해주셨다는 것이었다. '눈설(雪)' 자에 '기러기 안(雁)' 자의 이름은 눈송이가 나붓나붓 내리는 겨울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는 풍경을 떠올리게 했다.

"증조부께서는 1933년에 돌아가셨는데 1945년에 해방이 될 거라고 예언하실 만큼 영남 학자들 중에서 학문이 깊으셨다고 합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아내는 선물 받은 사진을 나의 서재 책꽂이에 세워두었다. 7년 전 불일암에서의 그 순간을 선물 받은 것만 같아 마음이 흐뭇해진다.

2018 복합문화공간
KUmuda



쿠무다가 달라집니다

2018년 쿠무다 vision

총 8층 규모 연면적 600평
– 부지 확보 완료 – 건축설계 완료 – 후원 접수 중
(2017년 12월 현재)

8층 **휴휴정**
7층 스님들이 참가할 수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6층 **복합문화학교** (교육원)
5층 **법당** / 기도와 수행을 할 수 있는 신행 공간 (대운사 법당 · 명상센터 · 공연장)
4층 **프렌치레스토랑** / 특화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전문 음식점 · 쉐프, 음식아카데미 운영
3층 **레스토랑** /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정통 레스토랑 쉐프, 음식아카데미 운영
2층 **쿠무다** / 책을 읽으며 차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 바리스타 파띠쉐 아카데미 운영
1층 **주차장**
지하 **주차장**

◀ 새롭게 건립될 쿠무다 신축 조감도

쿠무다 개원 4주년 기념
목종 스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북콘서트의 아름다운 동행에 초대합니다

저 푸른 하늘은 자성과 같이 구름 한 점 없고
산과 들은 끊임없이 무상함을 들려줍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서 실천해야 할 내일이 있습니다.
목종 스님의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 중에서





목종 스님
부산 대광명사 주지
서울 지금선원 선원장

BTN신행담 〈가피〉 진행
부산불교방송 〈목종 스님의 월요법문〉 진행
저서 〈구하지 않는 삶의 즐거움〉 _담앤북스

초대 ARTIST


KoN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동대학원 졸업
한국 최초의 집시바이올리니스트
〈히든싱어〉 이적 편 우승
뮤지컬 〈모비딕〉, 〈페임〉, 〈오필리어〉 등 출연


주병선
칠갑산과 같은 품격과
한결같은 매력을 지닌 가수
대표곡: 「칠갑산」, 「어머니의 나라」,
「아리아리요」 외 다수

BOOK CONCERT
12월 24일(일) 오후 4시 북카페 cafe KUmuda
초대 ARTIST_ 집시바이올리니스트 KoN · 가수 주병선

예약문의
카페 쿠무다
t. 051-701-7559

cafe KUmuda
부산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62 (송정동 441-21)